

# 민영돈 조선대 총장 “AI교육·미래 선도대학으로 입지 강화”

### 취임 2년... 4차 산업 흐름 맞춘 100년 대학 위한 과제 점검 대학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최우수... 지역발전 견인 노력도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향후 2년 동안 'AI교육'과 '미래 사업 선도'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대학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민영돈 총장은 취임 이후 2년 동안 당면 과제 해결과 대학 내실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제 100년 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미래를 선도할 역량을 키우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계산이다.

취임 당시에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 '제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등 대학의 사활이 걸린 큰 과제와 현안들이 산재해 있었지만 이후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조선대학교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교육부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최종결과에서 조선대는 호남권역 대학과 비교해봤을 때 평균보다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아 '잘 가르치는 대학', '잘 지원하는 대학'

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년 간 조선대는 대학 평가를 위해 교육 과정 등 개선해야 될 점들과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썼다. 100여 개의 온라인 비대면 강의실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수업평가 반영 등 온라인 수업 대비를 진행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다.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인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노력도 펼쳐 나갔다. 조선대학교는 동남권 산학관 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광주 동·남지역의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지역 발전 견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선대 민영돈 총장

이와 함께 인공지능 특화도시인 광주에서 인공지능 산학 기술 교류회를 개최해 운영중이며, 광주 e스포츠 경기장 유치 등을 통해 다양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의 e스포츠 산업 육성의 발판이 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펼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 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부의 지원 마련을 위한 지방 대학 간 총장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학생 충원을 위한 좋은 교육,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전국 대학 간에 벽을 허무는 공유대학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조선대와 전남대가 함께 참여해

진행 중이다. 공유대학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대학에서 같은 내용의 학습 교육을 받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2년 동안에는 'AI교육'과 '미래 사업 선도' 등을 진행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으로서 입지를 견고히 할 계획이다. 앞서 조선대는 굵직한 국책사업을 다수 진행하며 다각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3월 조선대는 호남권에서 최초로 두 차례 인공지능을 연구·개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선정돼 생물의학융합실험을 진행했다. 이어 백두산 전지폭발 징후를 관측하는 임부의 큐브위성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위성 진동저감장치 상용화 기술 공동 개발에도 성공했다.

또한 학생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CU INNO SPACE' 공간을 마련해 첨단 기술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IT 페스티벌을 진행해 캡스톤 디자인 발표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 창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역 8개 기관이 협력한 합동지원소를 조선대학교 내에 설치해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실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총 1250억여 원이라는 사업비를 수주했고 지난 9월에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대학 브랜드 평판에서 전국 20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민 총장은 앞으로의 100년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학교 설립 이념의 3가지 가치인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장학교육'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민영돈 총장은 "코로나19,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시대적 어려움이 있지만 대학 구성원, 교수, 직원, 학생, 동문 그리고 지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좋은 대학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자랑스러운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직업계고 11개교 중 6개교 신입생 미달...토목·기계 계열 심각

### 3·4차 산업계열은 지원을 높여...계열별 구조조정 필요

광주 직업계고 11개교 중 절반이 넘는 6개교가 내년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계고의 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최근 2022학년도 광주지역 직업계고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2156명 입학 정원 중 362명이 미달했다.

학교별로는 광주자연과학고, 광주전자공고, 금과공고, 동일미래과학고, 송의과학기술고 등 5개교는 정원을 채웠다. 반면 광주공고(지원율 63.6%), 광주여상(93.9%), 서진여고(48.5%), 송남여상(71.0%), 전남공고(57.3%), 전남여상

(99.2%) 등 6개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21학년도에도 전체 직업계고 11개교 중 6개교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직업계고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데다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직업계고 선호도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계열별로는 기계와 토목계열의 지원율이 다른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3·4차 산업계열의 지원율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비선호 계열에 대한 구조조정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기계와 토목계열의 지원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제빵과, 스마트팩토리과, 디자인과, 애완동물과, 조리과학과, 토발뷰티과 등은 인기가 있다"며 "미충원 학교는 12월 9일부터 추가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기상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직업계고도 변화가 불가피하며, 광주시 산업 분야를 면밀하게 분석해 학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 산업 분야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새로운 분야에 인력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4차산업 역량 강화 '드론코딩교육' 전남대학교가 최근 재학생들의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코딩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동신대, 조선대, 조양대 등 3개 사립대 학생들도 참여해 국·사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전남대 제공>

## 동강대 건축과 '메타버스 공간을 짓다'

### '건축디자인전&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동강대학교 건축과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아이디어 작품을 선보였다.

동강대 건축과는 최근 교내 이공관에서 '제45회 건축디자인전&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축전 주제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는 'COVID-19'로 비대면 언택트 방식의 일상생활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동강대 건축과는 20여 개 전시 작품마다 QR코드를 제작해

내부 공간까지 VR로 관람할 수 있게 했다.

건축전 대상은 조하경 씨의 '뉴 쇼핑센터'로 내 집에서 바로 만나는 쇼핑물을 콘셉트로 한 작품이다. 또 이번 건축전에는 '제18회 광주건축·도시사진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고재민(1년) 씨의 작품을 비롯해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학생우수공모전'에 출품한 5개 작품도 선보였다.

이밖에도 리안 건축디자인 사무소 이종민 대표가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건축설계 전문화 및 다양화'라는 주제로 '2021 동강 건축 특강'을 진행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여대, 플로깅 2차 활동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사회봉사센터는 최근 1365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구사랑 환경보호 마음나눔 사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역사회 연계 연합활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여대-어등산 일대에서 실시되었던 플로깅 1차 활동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학생들과 지역사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지구사랑 환경보호 마음나눔 사회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광주여대에서도 시작하여 우산시장 인근지역으로 플로깅 활동을 이어나갔다.

플로깅 활동에 참여한 정희운(미용과학과 1학년) 학생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이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함께 하길 바란다"며 지구사랑 환경보호 활동의 확산을 주문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 교육혁신본부, 오늘 광주전남권역 교양교육 포럼

전남대학교가 시대변화에 따른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가진다. 전남대 교육혁신본부(본부장 차성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실시간 화상(Zoom)에서 광주·전남권역 교양교육 포럼을 가진다.

이번 포럼은 '뉴노멀 시대, 지역상생을 위한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광주·전남권역 대학 간 교양교육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양 교육과정 방향을 탐색한다.

이번 포럼에서 이보경 한국교양기초교육원장은 주제강연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학교육 변화의

필요성과 교양교육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조선대, 순천대, 전남대에서 각 대학의 교양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좌장과 주제강연자, 사례발표자, 포럼 참여자들의 종합 토의가 진행된다.

교양교육 담당자는 물론 관심있는 누구나 온라인(ID: 923 7446 5800)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차성현 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교양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광주·전남권역 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